

IT 산업을 보는 새로운 '창'

# IT DAILY

## "클라우드 IT 기업 양상 및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시켜"

IBM, MS, 오라클 등 애플리케이션 구축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2009년 11월 19일 (목) 12:38:57

차정석 기자 [cjs@itdaily.kr](mailto:cjs@itdaily.kr)

[싱가폴=차정석 특파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넷이벤처가 19일 본격 개막됐다.

첫번째 세션에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키그룹에 따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신의 인프라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의미하는 것으로 SaaS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려는 사용자의 경우 실제 사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원리는 기업 WA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자원을 통합해 전용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모바일 인력, 파트너 또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액세스를 확대 제공하려는 대형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데이터센터의 통합 방식보다는 기업 WAN과 보다 광범위한 인터넷 가용성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시장은 소셜 네트워킹, 검색 엔진, 경매 사이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점차 클라우드로의 변화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통신서비스사업자, 장비 업체, 소프트웨어 기업, SI 및 신생기업들 모두 조심스럽게 또는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기존의 대표적 IT 기업들 역시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플랫폼 역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IT 기업 양상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온 SaaS 업체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무료로 가까운 인프라를 사용하며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카밀 멘들러 양키그룹 글로벌 서비스 전략 총괄 부사장은 "클라우드의 최근 개발 성과와 이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줄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조사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기회와 우수 관련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